

#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김명숙\*, 홍상욱\*\*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영남대학교 교수\*

## Research trend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Myung-Suk Kim\*, Sang-Ook Hong\*\*

Department of Family Residence at Yeungnam University\*,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요약**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I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 135편의 학술논문(일반적 특성, 연구자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변인)을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논문은 1998년도에 첫 발표되었으며, 2017년에 16편(11.9%)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구자 수는 2인 이상 공동연구가 많았다. 연구대상은 4년제가 가장 많았고 2년제, 3년제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크기별로는 201-300인 경우가 49편(36.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서 양적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분석방법은 상관분석이 많이 사용되었다. 심리적 안녕감의 변인설정은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추가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심리적 안녕감, 연구동향, 연구방법, 연구변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r college students. For this purpose, 135 academic paper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researchers,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variables) published in KCI registered sites and candidate sit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riteri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search paper was first published in 1998, in 2017, it increased to 16 flights(11.9%), As for the number of researchers, there were many joint studies with two or more people. Research subjects were four-year system, followed by two-year system and three-year system. By sample size, 201-300 was the most common with 49 samples (36.3%).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in the research method,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widely used as the analysis method. In most cases, the setting of the variab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influence of other variabl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was examined. Finally,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added.

**Key Words** : College student, psychological well-being, Research Trends, Research method, Research variable

Received 30 Sep 2022, Revised 18 Oct 2022  
Accepted 24 Oct 2022  
Corresponding Author: Sang-Ook Hong  
(Yeungnam University)  
Email: sanguk@yumail.ac.kr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인간은 생활 속에서 행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행복은 자신의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1].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즐겁고 기쁘지,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으며[2]. 행복한 삶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기능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간다[3].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인들은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4].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며 확립되는 것과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업을 지닌 대학생 시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다[5].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차원 중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자아수용,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점수는 평균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7]. 또한 자주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이 33.2%, 생활에서 불편감을 경험한 학생이 41.4%,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학생이 20.2%였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심리적인 마음 건강 상태는 위기 수준이지만 아픈 학생을 선별할 가이드라인이 없었다[8]. 또한 대학생의 심리, 정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취업 경쟁 및 불안의 심화(33.5%), 경제적인 어려움(18.8%), 초기 성인으로서의 가치관 부족(14.8%)현상이 나타났다[9]. 입시경쟁에서 벗어나서 대학교에 입학은 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10].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고[11]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와 학점경쟁, 대인관계, 이

성문제 등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다[12].

이처럼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에 관심을 가지고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22년까지 국내 학술 논문은 총 1,365편이다. 이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276편이 연구되어 왔다. 지속적으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후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대상별 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방법별 동향을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분석대상 논문 선정과 수집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키워드로 1차 검색을 하여 총 1,681편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대학생’이라는 키워드로 2차 검색을 하였고, 게재연도나 학문분야는 제한하지 않았다. 검색을 통해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총 135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논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DBpia(누리미디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스킨라, 국회도서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분석 논문의 질 보장을 위해 학계에서 검증을 거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등재후보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초록과 key word를 확인

하여 연구주제와 맞지 않거나 내용 확인이 되지 않는 논문은 제외하였다.

## 2.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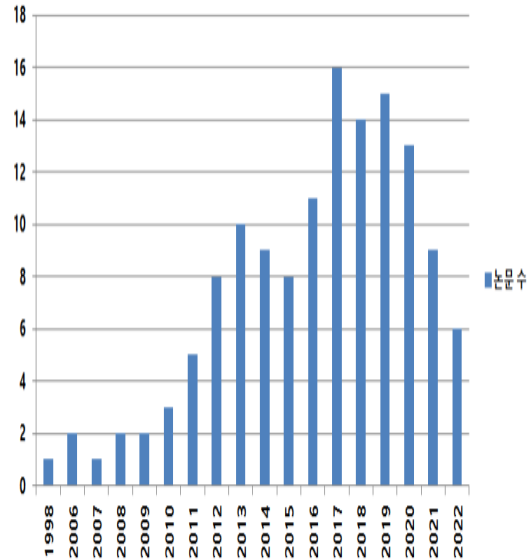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논문들을 토대로 심리적 안녕감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14], 유능감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15], 유아교사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16])를 참고하여 일반적 특성(계재연도,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단독 및 다수), 연구대상(학년제, 표본크기), 연구방법(양적, 질적, 혼합연구) 및 통계방법, 연구변인(독립변인, 종속, 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등 분석준거에 따라 분류하여 동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할 세부준거는 <표 1>과 같다. 또한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2인(상당 전공 교수 1인과 평정자 1인)과 연구자가 분석 대상 논문을 분류하였다. 다른 연구자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조율을 한 후 수정작업을 하였다.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사항

분석준거	세부내용
일반적 특성	- 학술지 계재연도 -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	- 단독 및 다수 연구자의 공동연구
연구대상	- 대학교 학년제 - 연구대상 표본크기
연구방법	-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양적+질적) - 통계방법
연구변인	- 독립변인/종속변인/매개변인/조절변인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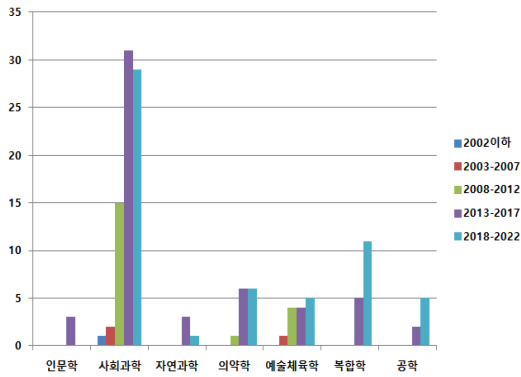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논문 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총 135편이다. 국내에서 대학생 심리적 안녕감에 관련한 학술연구가 1990년 후반 들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1998년에 1편(0.7%)을 시작으로 2006년 2편(1.5%), 2007년 1편(0.7%), 2008년 2편(1.5%), 2009년 2편(1.5%), 2010년 3편(2.2%), 2011년 5편(3.7%)이 게재되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2년에는 8편(6.0%)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3년 10편(7.4%), 2014년 9편(6.7%), 2015년 8편(5.9%), 2016년 11편(8.1%)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16편으로 전체의 11.9%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8년 14편(10.4%), 2019년 15편(11.1%), 2020년 13편(9.6%), 2021년 9편(6.7%), 2022년 6편(4.4%)이 발표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2] KCI 주제별 출현빈도 분석

학술연구재단의 8개의 주제별 범주중에서 단 1편의 연구가 나타나지 않은 농수·해양학 분야를 제외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약학, 예술·체육, 복합학, 공학 부분을 연도별로 분석하였고, 계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2013~2017년에는 인문학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대학생 심리적 안녕감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제별 동향을 정리해 보면 사회과학 분야는 2002년 이전에 발표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78편을 나타냈다. 이어 복합학 16편, 예술·체육학 14편, 의약학 13편, 공학 7편, 자연과학 4편, 인문학 3편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도 이전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1편을 시작으로 2003~2007년에 예술·체육학분야 1편이 게재되었고, 2008~2012년에 의약학 분야 1편이 게재되었으며 2013~2017년에 연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인문학, 자연과학, 복합학, 공학분야에서도 처음으로 논문이 게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3.2 연구자 수

<표 2> 연구자 수

연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합계
빈도	48	62	21	1	3	135
비율(%)	35.6	45.9	15.6	0.7	2.2	100

전체적으로 볼 때 1인 연구가 48편으로 35.6%로 나타났고, 2인 연구가 62편(45.9%), 3인 연구가 21편(15.6%), 4인 연구가 1편(0.7%), 5인 이상 연구가 3편(2.2%)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연구보다 2인 이상 공동연구가 87편(64.4%)로 공동연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 연구대상의 학제별과 표본의 크기 분류

<표 3> 연구대상 학제별 분석결과

구분	1998-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합계
2년제	-	-	3(2.3)	2(1.5)	5(3.7)
3년제	-	-	2(1.5)	-	2(1.5)
4년제	3(2.3)	19(14.1)	45(33.2)	54(40.0)	121(89.6)
기타	1(0.7)	1(0.7)	4(3.0)	1(0.7)	7(5.2)
계	4(3.0)	20(14.8)	54(40.0)	57(42.2)	135(100)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에서는 대학생들을 표집한 대학교 학제와 표집인원 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학제별 분석은 학제가 표기된 경우에는 2년제, 3년제, 4년제로 분류하였으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로 표기하였다.

<표 3>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를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가 121편(8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재되지 않은 기타 7편(5.2%), 2년제 5편(3.7%), 3년제는 2편(1.5%)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에 57편(42.2%)으로 학제별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4> 연구대상 표본크기 분석(72.6%)

표본 크기	100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1-600	601-700	701 이상	계
연구 수	16	25	49	26	8	7	2	2	135
비율 (%)	11.8	18.5	36.3	19.3	5.9	5.2	1.5	1.5	100
남	13,550			38.8%			35,833(100%)		
여	22,283			62.2%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을 보면 <표 4>에서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201-300인 경우가 49편(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1-400인 이하 26편(19.3%), 101-200인 25편(18.5%), 100인 이하 16편(11.8%), 401-500인 8편(5.9%), 501-600인 7편(5.2%), 601-700인 2편(1.5%), 701인 이상 연구가 2편(1.5%)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성별은 남, 여 표본의 크기를 확인할 수 없는 7편(1,152명)을 제외한 전체 35,833명 중에서 여성이 22,283명(62.2%)으로 남성 13,550명(37.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더 많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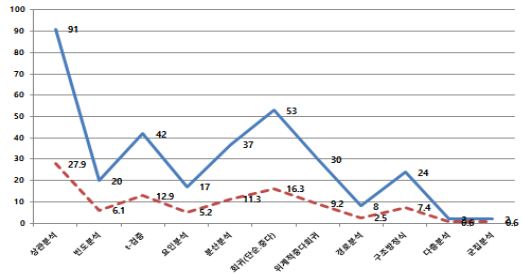
### 3.4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다음으로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구분		빈도	비율(%)
양적연구	서베이(설문)	119	88.1
	실험연구	11	8.2
	내용분석	1	0.7
혼합연구	양적 + 질적	4	3.0
합계		135	100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연구방법론을 살펴보았다. 먼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혼합연구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논문 총 135편 중 서베이, 실험연구, 내용분석을 포함한 양적연구를 이용한 연구(n=131, 97%)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혼합연구(n=4, 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혼합연구는 2016년에 시작되어 2019년까지 연구가 되었다. 질적연구는 1편도 나타나지 않았다. 양적연구 방법에서는 서베이조사가 119편(88.1%) 실험연구가 11편(8.2%), 내용분석이 1편(0.7%)으로 대부분 서베이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통계방법에 따른 분류

연도별 통계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 [그림 3] 과 같이 상관분석 91회(27.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귀분석(단순, 중다) 53회(16.3%), t-검증 42회(12.9%), 분산분석 37회(11.3%), 위계적중다회귀분석 30회(9.2%), 구조방정식모형분석 24회(7.4%), 요인분석 17회(5.2%), 경로분석8회(2.5%), 다층분석 2회(0.6%), 군집분석 2회(0.6%)순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상관분석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방법은 한 연구 내에서 한 개 이상의 연구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중복으로 표시하였다.

### 3.5 연구변인에 따른 분류

<표 6> 연구변인에 따른 분류

변인	1998-2007	2008-2012	2013-2017	2018-2022	합계
독립변인	-	-	4	8	12 (8.9)
종속변인	4	20	48	43	115 (85.2)
매개변인	-	-	2	6	8(5.9)
조절변인	-	-	-	-	-
계	4(3.0)	20 (14.8)	54 (40)	57 (42.2)	135 (100)

연구 변인별 논문을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이 종속변인으로 활용된 연구가 115편(85.2%)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경우 12편(8.9%),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경우가 8편(5.9%) 순으로 사용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는 해마다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개관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특성과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향후 심리적 안녕감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학술지 135편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자료로 하여 일반적 특성(계제연도, 학술지분야), 연구자 수(단독 및 공동), 연구대상(학년제, 표본크기), 연구방법(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통계방법), 연구변인(독립변인/종속변인/매개변인/조절변인)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대학생 심리적 안녕감 관련 논문은 1998년 1편을 시작으로 연구되었으며 2017년 16편(11.9%)으로 급증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3~2017년에는 인문학 분야를 포함해 전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2년 이전에 발표된 이래로 사회과학분야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전체 78편을 나타냈다. 이어 복합학 16편, 예술·체육학 14편, 의약학 13편, 공학 7편, 자연과학 4편, 인문학 3편으로 지속적인 연구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심리적 안녕감은 다양한 학술지에 걸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자 수는 1인 단독으로 진행한 연구보다 2인 이상 공동연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인 연구가 48편으로 35.6%를 나타냈고, 2인 연구가 62편(45.9%), 3인 연구가 21편(15.6%), 4인 연구가 1편(0.7%), 5인 이상 연구가 3편(2.2%)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연구보다 2인 이상 공동연구가 87편 64.4%로 공동연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의 결과로는 4년제(89.6%), 대상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서 3년제(1.5%), 2년제(3.7%)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저조하였다. 연구대상의 크기는 201~300인 경우가 49

편(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2.3년제 학생들은 4년제 학생들 보다 진로에 대해 단시간에 준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높은 진로장벽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17]. 추후 이러한 차이점이 반영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연도별로 분석방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분석방법은 상관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두 변수 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회귀(단순,중다)분석이 2008~2018년 이후 꾸준히 사용되었다. 또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이 2008~2018년 이후 매년 사용이 되었다. 그동안 대학생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대학생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련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검증과 분산분석이 꾸준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9년 다층모형분석을 이용한 논문이 각각 1편씩 게재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술지 교욱평가연구에 다층모형을 처음 발표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18]. 시기적으로 늦게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다층모형을 활발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대학생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양적연구와 함께 질적연구도 이루어져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주요변수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심리적 안녕감이 종속변수로 설정된 경우 독립변수로는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용이 많이 설정되었으며,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회복탄력성, 긍정심리자본, 사회적지지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보다 조절변수로 설정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 본 종속변수로 활용된 연구가 115편(85.2%)로 가장 많았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적인 연구의 경향을 보는데 제한점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학위논문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혼합연구만을 포함하였기에 대학생 심리적안녕감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추후 질적연구, 문헌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면 대학생 심리적안녕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 References

[1] Seligman, M. E. P.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3]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4] 이은숙 (2016).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3), 470-482.

[5] 정민,노안영 (2008). 대학생의 외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장독립-장의존적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373-387.

[6] 차경호 (1995).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개인중심주의-집단중심주의성향과의관계. 한국청소년연구,10(2),193-216.

[7] 한국대학신문(2022). “대학생들이 아픈데 어쩌나.”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제57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대학생의 심리적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방안.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9] 교육부국민서포터즈(2022.3.25). “코로나19 이후 대학생 마음건강지원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https://if-blog.tistory.com/13134>

[10] 김경옥, 조윤희(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11] 유계숙, 신동우(2013).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5), 3849-3869.

[12] 윤경미, 유순화(2015).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3(4), 105-127.

[13] 이자연 (2013)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완벽주의와 부모애착에 따른 집단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간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최지영, 배라영(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15] 최윤선, 이규미 (2017), 유능함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학교, Vol.14 No.3 [2017]305-330(26쪽).

[16] 박희숙. 2007. “유아교사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유아교육연구』 27(15): 212-231.

[17] 김종운 · 박성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이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18] 김경성 (1991). 다층자료분석에 관한 연구(분석방법의 고찰). 교육평가연구, 4(1), 5-21.

[19] 김신애,조항(2020),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및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2), 91-110.

### 김 명 속(Kim, Myung Suk)



- 2017년 8월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가족복지상담 수료
-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 관심분야 : 청소년상담, 부모교육
- E-Mail :ie2337@naver.com

### 홍 상 옥(Hong, Sang Ook)



- 소속: 2022년 10월 생활과학대학 가족주거학과 교수
- 학력: 1990년 3월 일본 오오사카 시립대학 학술박사(생활복지학전공)
- 현재: 한국복지상담학회 회장
- 관심분야: 가족코칭상담 및 복지, 부모교육
- E-Mail: sanguk@yu.ac.kr